

李敏雨 總裁 演說 要旨

- 우리는 아시안 게임을 통해 우리의 成熟된 國民的 力量을 世界에 立証. 그러나 이러한 成果를 幻想的으로 誇張하거나 自身들의 功勞인 樣 歪曲 宣傳하고 있는 것은 慨歎스러운 일이며 唯獨 政治分野만이 落後되어 있는 것은 遺憾
- 民主化가 이 나라 政治發展의 唯一한 王道이며 現段階에 있어서 民主化의 核心은 "國民의 自由로운 政府 選拔權"을 保障하는 大統領 直選制의 實現
- 現政權은 國民의 壓制的 多數가 要求하는 大統領 直選 改憲을 外面하고 長期 執權의 凶計를 死藏시킨 似以非 內閣 責任制 改憲主張으로 또다시 國民을 欺瞞
- 內閣 責任制는 基本的으로 獨裁政權의 延長으로 斷絶하며 그 證據로
 - 國會 議員 選舉 制度에 對하여 言及이 없고
 - 執權黨이 黨權을 掌握한 人士에게 黨所屬의 國會 議員의 모든 行爲를 指示, 監督할 수 있는 權限을

賦与한다면 모두가 꼭두각시에 不過

- 나와 우리黨은 國內外로부터 妥協과 讓步의 重要性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이른바 "판술이" 따위의 威脅的 言辭와 함께 상반적인 兇想의 讓步를 勸誘 받든바 왔으나 絶对多數 國民의 直選制 熱望을 絶对로 저버릴수 없음
- 따라서 우리가 當面하고 있는 모든 問題를 一挙에 解決할수 있는 方案으로 大統領 直選制와 內閣 責任制를 國民에게 直接 選拔하게 하는 方法을 提議
- 1 前提條件으로
 - 兩者 採-을 可能케 하고
 - 贊反 討論의 自由로운 公報 活動을 可能하게 하며
 - 投票票의 公正性 保障
 - 國民投票를 비롯 全選挙過程을 管掌할 奉國的인 選挙管理 內閣 構成 必要
- 改憲에 合意한 即時 民主改憲을 主張하는 理由로 拘束된 모든 人士의 即刻 釈放 斷行 및 赦免 復權

措置 必要

- 現在의 苛酷한 言論彈壓은 現政權이 스스로 暴力革命의 正当性을 提供하는 試探의 行動으로 政府의 言論彈壓 中斷要求
- 不實企業 整理에 對해 少數財閥에 特惠를 주고 政府가 仔細한 內容 発表을 拒否하는 것은 言語道斷
- 輸入開放政策은 美國의 壓力 때문이지만 1000萬 農民과 零細庶民들의 犧牲을 強要하면서 양당배 까지 輸入하는 것은 理解困難
- GNP의 一定率을 無條件 配定하는 國防費는 效率性을 提高하여 削減하고 原油價 下落分을 油價引下措置 當然
- 나는 國民이 우리에게 賦與한 聖스러운 職責을 領고 外는 것이며 13代 國會가 더 이상 只今과 같은 目的을 爲해 用爭할 必要가 缺기를 祈願

新韓虎 李敏雨 總裁

代表 演 說 文

議長,

議員同志 여러분!

總理 이하 國務委員 여러분!

얼마전 우리는 아시안 게임을 통해 우리의
成熟된 國民的 力量을 우리 자신에게는
물론 온 세계에 다시 한번 示證했읍니다.

나는 여기에서 얻어진 自信心이 앞으로
우리 民族의 將來를 開拓함에 있어서도 매우
肯定的인 寄與를 할 것으로 믿으며, 그런 의미에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거둔 이러한 成果를 두고 우리 자신을
환상적으로 과장하거나, 또한 그것을 마치
자신들의 공로인양 專曲·宣傳하고 있는 것은
꽤란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것은
국민의 偉業에 대한 모욕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번 아시안게임 결과를 보면서 특히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우리 국민이 世界史上 類例 없는
 곤란과 성실로써 經濟·社會·文化·體育 등 거의
 모든 重要 部分에서 과보하마하 발전을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 政治인들이 責任者인 것은
 政治수요만이 거짓말처럼 落後되어있는 현실
 에 대해서였습니다.

왜 政治수요만이 世界最後^{단계}발전의 반열에
 위치하지 經濟·社會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커녕
 오히려 阻害^{阻害}요인으로 지탄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도대체 그 責任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나는 政府·^政黨에 多大인 責任은 여러분들의
 책임을 맡히기에 앞서 지난 1년 10개월 동안
 野黨을 이끌었던 나 자신의 책임을
 먼저 反省드리고자 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민주화가 이 나라 政況^{정국}의 唯一한 正道이며, 현단계에 있어서 민주화의 核心은 '國民의 自由로운 政府^{정부} 鑿扶^{조력} 權을 保障하는 것, 즉 大統領 直選制의 實現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 보^면 ~~면~~, 내가 이 사실을 政府 與黨의 여러분들에게 설득하는 방법이 있어서는 상당한 ~~실패~~ ^{실패}가 있지 않았나 생각 ~~되~~ ^되는 ~~것~~ ^것입니다. 좀 더 생각해야 할 것
 싶은 것입니다.

예컨대 ^대 나타나는 안철 政權, ~~정권~~ ~~정권~~, 「國民의 階中에 위해 무한히 거부되리라 할 政權, 등의 적절한 手段으로, 절타한 것은, 그것이 비록 민주政變을 實現하기 위한 手段이었다고는 하나, 현명한 설득 방법 은 아니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기두는
 바로 이러한 표현이 執權機關에게는 ~~반대~~
~~복의 표현~~ 불려 일으키는 것이고, 우리 당의
 거듭된 政治報復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 의구심이
 막강히 싹겨지는 양상을 것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學黨議員 여러분!

진심으로 말씀드리거니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이유때문에 이치에도 맞지 아니하고, 國民의
 學黨 小宗과도 背馳되는 內閣責任制 改革을
 구상한다면, 그것은 모해가 빛어낸 誤謬일
 따릅니다.

虛構的인 政治報復의 공포때문에 執權延
 長을 꾀하고, 그 결과 가혹이나 落後된 政治
 體의 變遷을 계속해서 가로막는다면 後世의
 史官들이 이 時代를 책임질것인 우리들에 대해

어떻게 평가 하겠읍니까?

나는 후반기 의원 여러분등이 지난 2-12 總選 과정에서, "대통령을 내손으로 뽑자"는 국민의 합성을 온몸으로 드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선 직후에는 이와 같은 국민의 열정을 더 이상 거역할 수 없다는反省이 여러분들의 내부에서도 격렬하게 일어났다는 사실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당이 연금과 양사벌제, 소속의원외 기소 등 목각 시련을 겪으면서 反民主的인 현행 헌법의 개정을 요구했을 때, 여러분등은 오로지 政權을 놓지 않겠다는 단 한가지 이유 때문에 護憲의 길을 갈 만 되돌아 강후회 했읍니다.

자기 당의 핵심 당원들을 상대론한 여론
 조사에서조차 압도적인 다수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 했음에도 불구하고
 執政黨은 이를 감추기에만 급급했음 뿐이며
 급기야는 온 국민의 분노 같은 개헌 요구를
 잠시나마 怒濤 拍門하기 위해
 "89년 개헌檢討論"을 펴는 극화한
 모습까지 보였음이다.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가던 1천만 개헌서명 운동등 국민의
 거센 반박에 부딪쳐 마침내 우리 國의
 개헌요구를 수락했음 때, 그 마지막
 순간에 또 다른 음모를 꾸몄다는 점입니다.

헌정전은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요구하는
 대통령 直選改憲을 외면하고, 長期執政
 의 續繼를 秘藏시킨 似而非 不각척의자

개헌주장으로 또 다시 죽음을 기만하려
한 것입니다.

2.12 총선 과정에서 한번도 내각책임제
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았
으면서, 느닷없이 이것이 절대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는 국민의 여망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나와 우리당은 헌정권의 이와 같은
역지가 기본적으로 總裁政權의 延壽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며, 그 움직일 수 없는
증거로 다음 두 가지를 지적하는 바입니다.
첫째,

여러분들은 내각책임제라는 政府形態의
결 무늬에 대해서만 말했음을 뿐 지금
이시간까지도 내각책임제 하에서의 「국민의
자유로운 政府違犯權」 保障 여부를
결정짓는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一言奉句도 비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反民主的인 국회의원 선거법을 끝내 감취우고 있다가, 여당의 개헌안은 힘으로 밀어붙인 후 ~~헌당이 떠난~~ ~~헌당이 떠난~~ 국회의원 선거법에서 제멋대로 통과시킬 계획임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수렴에도 불구하고 민정당은 내각책임제라는 카락에 대해서만空洞한 설명을 내놓고 있고, 국권의 자유로운 정부선택권이 어떻게 보장되는가에 대해서는 좋은 침묵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가령 反民主的인 국회의원 선거법을 끝내 감취우고 있다가, 개헌안을 힘으로 밀어붙인 후 ~~헌당이 떠난~~ 12월에서 ~~헌당이 떠난~~ 안을 통과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구성된 국회, 그런 방법으로 차지한 衆議院과 政權이 얼마나 편할 수 있었을까.

내가 내각책임제 개헌구상을 가리켜 「一黨 長期 獨裁 陰謀」라고 비판하고 아랑까지 드러내지 않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바로 숨겨진 흉기라고 지적한 것은 바로 이와같은 이유때문인 것입니다.

둘째,

현재 政府·與黨이 주장하고 있는 내각책임제 개헌구상은 앞서도 말씀 드렸듯이 국회의원 선거제도 여하에 따라 「一黨 長期 獨裁」의 길을 예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執政黨의 黨憲과 黨規의 내용이 따라서는 「一人 長期 獨裁」라는 최악의 상태마저 가능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등 위원이 이끄는 전

예컨대 집권당이 ~~黨權~~ ~~黨權~~ 등 ~~黨權~~ 黨權을
 장악한 人士에게 黨 소속 국회의원의 모든
 政治行爲를 指示·監督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면, 결과적으로 議會와 內閣 그리고
 심지어 首相까지도 그 人士의 專斷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본받지 않아야 할 몇몇
 後(列)에서 현시적으로 나타난 專斷적인
 反民主的 統治方法의 한 形態이며, 따라서
 나와 우리 黨이 이러한 專斷의 가능성에 대해
 우려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
 니다.

~~실제로 憲政權은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해 침묵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태여
 요구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스스로 발휘해야 할
 憲政權은 內閣의 관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하라리도 설명이 없었습니다~~

진실로 승려진 흥제가 있다면 무엇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병어와 노릇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지, 감추어진 음모가 있다면 무엇때문에
 나와 온 국민의 의무에 대해 변변한 설명
 한번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충북 그리고 議員同志 여러분!

나와 우리 뜻은 지난 수개월 동안 國內외로
 부터 妥協과 讓步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때로는 辭句와 이론의
 화살이, 때로는 威嚇的인 언사와 함께
 타협을 강요하기도 했고, 또 때로는 우리 國民의
 심부름과 이 나라의 정치현실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로 부터 浪漫的인
 理想의 양해를 권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뵙드리거니와 나와 우리 뜻은
 2.12 ^{총회} ^{총회}와 개헌 헌안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던 단합대회를 통해 거듭 거듭 확인된 바 있는
 3.1대다수 국민의 대동경지심에 개헌 예언은 실현
 시버릴 수 있습니다.

나라고 해서 국민이 두려워하는 정국을 바랄라
 마는, 이 나라의 ^{미래}가 흔들릴지도 모를 처참한
 '파쓰이'가 줄거운 일일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우리 뜻이 두려움때문에 굴복하여 대동경
 지심에 요구를 포기한다면,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다 그 ^정의에 의해 성립될 ^것이다
^것은 ^것이다 ^것이다 ^것이다 ^것이다
 된 것보다도 ^것이다 더 ^것이다
 문법을 짚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것이다 ^것이다 ^것이다 ^것이다
^것이다 ^것이다 ^것이다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아무리 애를 쓴다

하더라도 環境의 院內 發展은 불가능해질 것

이며, 마침내 ~~대한민국의 근심 그 차이를 어렵게~~

만드는 사태에까지 이른 것 같다.

나리의 경우

정신제거현에 대한 護身과 善後이 이와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히 눈에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뜻이 어떻게 ~~이러한 무의미한 일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와같은 이유때문에, 나는 政界 興黨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양면과인 것은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方法으로 「大統領

권력제」와 「내각총리제」, 즉, 개혁의 가장

核心的인 내용을 국민에게 직접 선택하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런 것이 실현가능한~~

제 의하는 바입니다. 내가 구하여 실명권을 받은
 없이 지금까지 개헌정국이 중립을 가두었던 것은
 결국 권력구조에 대한 ~~대. 불응의 태도~~ 때문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자신의 주장이
 절대다수 측면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란 사실은
 있어서 타협의 타협의 길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
 입니다. 행정권이 실제로 내각책임제에
 대한 국민의 호응을 얻고 있다면 권력구조의
 변화를 가져야 할 공무원에게 진정한
 권력교육을 강행했을 리도 없고 또 반성할
 통해 이방적인 내각책임제 선택은 자행했을
 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모든
 진정한 작업을 추구하는 대신 국민투표에
 의해 측면의 의사를 직접 확인할 것을 주장하
 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의 개정 또는 행정권 개혁

법을 民主的으로 改訂하여,

첫째,

積反竟思만을 骨子로 되어있는 條約을 改訂

「內閣責任制」와 「大統領直選制」兩者擇一
선택을 可能하게 하고,

둘째,

積反 言論을 禁하여 造反된 言論

만이 合法적으로 되어있는 言論을 改訂

하여 民主적이므로 자유로운 言論活動을

가능하게 하며

셋째,

民主主義國家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수준의 投票制度의 公正성을 保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아시다시피 君主制도~~

~~나폴레옹 3세가 共和政體를 廢止하고 황제로~~

~~되임하는 수작으로서 妄言한 이래 東西各國은~~

그는 비롯한 전 세계의 정은 16

그리고 法制뿐만 아니라 그 運營의
公正性도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民投票 會場들은~~
~~관장할 民投票 管理 內閣의~~
구성이 必用하다는 點은 강하게
指摘해 두는 바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나시피 국민투표
제도는 「나폴레옹 3세」가 普魯士國을
파괴하고 皇帝로 취임하는 手段으로서
안용한 이래 東西各國은

~~관장할 民投票 會場들은~~

그는 비롯한 전 세계의 정은 만장하
거주적인 선거관리위원회의

막론하고 거의 예외없이 집권자가 바라는 것을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이와같은 제의는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볼 때
 권력자에게는 말할 수 없이 유리하지만
 우리 민주정당으로서도 함으로 엄청난 위험부담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국민의 상존된 정치욕구를
 굳게 믿기 때문에 권력지지를 겸칭하는
 권력형 정치의 응징을 분해하기 위해 이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이와같은 제의를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지식로 국적이 「내가 되어줘」로 지지한다면
 무슨대면 두려움없이 ^{모든} 내가 제의를 받아들
 하 할 것이면 만약 이른 받아들인 ^{도입} 하신아
 어차면 더 이상 구체적인 ^{모든} 「내가 되어줘」
 지식의 ^{모든}

있습니다.

~~있습니다.~~

민주화란 바로 시민화의 다른 표현이며 또한 모든 제도를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도록 만들고 활용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이와 같은 의미를 부인했고 이 천송의 시민화를 거부해왔습니다.

지난 6월 24일 개정헌법 조항에 합의한 12월 11일 때도 996명이라고 ~~바뀌었지만~~ 구조자의 숫자는 9월 말 현재 1천 ~~6백명~~ ^{6백명} ~~을~~ ^을 ~~변역~~ ^{변역} 했습니다. 내가 拘束者 釋放, 文益煥牧師 구제, 赦免後 權 구제 등 ~~타당한~~ ^{합의} 의 성의를 보여야 할 ~~대~~ ^대 ~~를~~ ^를 거론했을 때, 「진체적인 大韓協의 여건조성을 위해 가능한 만사를 갖겠다던 行政權의 약속은 憲法의 特赦의 外面과 一致나 不일했던 光復後 特赦를 사실상 불거짐이 원리, 윤리이며너와, 결국 「가능한

관심을 갖는다는 말의 의미가 민주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계속 대물결로 추켜올린다는 뜻이었으며 판별의
기준은 백입니다.

권력構이 약속한 개혁이 단순히 憲法을 고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헌법을 민주적으로 고치겠다는 뜻이었
다면 개혁이 합당한 즉시 그동안 '민주改憲'을
주장해왔던 이유로 구속되어있던 모든 인사들의 즉각적인
석방이 단행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석한등의 민주化呼호를 임하는
길이었고 또한 국민으로부터 「민주改憲」 의지를
승인받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권력構은 구속자의 석방은
커녕 오히려 더 가혹한 자세로 民主士들을
 위협했으며 필사적으로 자신의 反民主的 憲法改訂
 더욱 무뎠하게 드러냈던 것입니다.

남의 강 ~~수필~~ 221

남은 분들을 가리켜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에 늘어난 拘束者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軍事獨裁의 終熄과 民主改革을
요구했던 학생,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자신의 권익을
주장했던 勤學者들, 오갈데 없이
꽃겨나 버릴까만 했던 가엾은 청계민들,
그리고 양심과 信仰에 따라 감연히 일어났던
牧會者들과 스님들이 ~~가볍게~~

가볍게는 「集示法」 위반으로 때로는
엄형나게도 「容許令」라는 딱지까지 붙여서
끊임없이 拘束되지 않았습니까?

이미 수차에 걸쳐 ~~한번~~ 간곡히
당부드린 바 있는

이이각반, 사회주의의 실현을 위해 인간 선
 사람^들이나 힘 없는 층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우익 우익 우익 우익 우익 우익
 이인 작 중지리야 힘 없 다 층의 권익 옹호
주장 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던 스승이 어느날
 갑자기 「우익 우익」의 박 인이 적 했 음을 알 았 을 때,
 어린 학생^들의 눈이 비치는 용공 분자나 공산 주의의
영 향이 과 연 어 찌 것이 되 겠 으며, 「인 非 인」의
성 적 의 행 위 를 위 하 야 했 던 여 대 생 은 左 傾 우 파
 되고 그와 같은 행 위 를 지 하 거나 일 생 이 었 던
 사람은 오히려 벌 을 주 민 한 자 목 이 없 다 고 했 을 때,
 국민^들의 「左 傾 우 파」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우 진 할 수 가 있 겠 을 까 ?

~~우익 우익~~

~~나는 최근 우 익 의 행 위 와 행 위 의 이 차 이 는
행 위 가 오 다 시 대 우 파 가 되 는 조 를 들 고 차 이 는
조 를 들 고 차 이 는 조 를 들 고 차 이 는~~

제5공화국 출범이후 갑자기 容共 左傾
主義者들이 급증한 것이 되어버린 것은
사실이 그러해서라기 보다 法 적용이
지나치게 민감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제의 해결은 민주세에서 찾아야지
결코 公安主義構의 확대를 통해 해결될
일이 아니며, ~~법집행력~~ ~~강화~~
政政治 査察에 투입된 인력과 예산도
보연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강력히
促求하는 바입니다.

議員同志 여러분!

政黨 政令의 건전한 발전은 政黨向의
건전한 信賴 없이는 절대로 기약할 수
없는 법입니다.

퍼내려는 무분한 기준처럼 생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만약 우리 당의 민주(民主)가
 중단되거나 실패하면 만(萬)리만 못(不)한 농(農)업(業)사(社)의
 기(基)를 내(內)린(亂) 온(溫)정(正)의 파(破)산(散)도 한(汗)과(과)徒(徒)勞(勞)로
 끝나고 말(말) 것이(이)며, 나(南)아(亞)가(가)서(서)는 대(大)한(韓)민(民)중(中)이 南(南)北(北)競(競)
 투(투)의 대(大)배(배)자(者)가 되고 말(말) 것(것)입니다. 農(農)業(業)社(社)會(會)의
 지(支)속(속)의 발(發)전(展)과 번(變)영(映)은 오(오)로지 民(民)主(主)義(義)의 실(實)현(現)이
 의(意)해(解)서(서)만 보(보)장(張)되는 것(것)이(이)기(기) 때문(因)입니다.

분(分)명(明)히 말(말)씀(說)드리(리)거(거)나(나) 이(이) 나(南)라(亞)의 政(政)治(治)的(的) 후(後)에
 대(大)해(해) 우리(우)리(리) 당(黨)이 책(策)입(入)려(려)야(야) 할(할) 대(大)목(目)이(이) 있(있)는(는) 나(南)
 기(基)가(가) 그(그) 재(재)적(積)을(을) 받(받)을(을) 것(것)입(입)니다(다). 그러나 현(現)직(職)권(權)층(層)의
 反(反)民(民)主(主)的(的) 성(性)향(向)이(이) 어(어)떻(적)게(게) 나(南)와(와) 우리(우)리(리) 당(黨)의(의) 뜻(뜻)이라(라)
 말(말)할(할) 수(수) 있(있)는(는)지(지)가(가)?

이(이)기(기)나(나)라(亞)의(의) 政(政)치(치)의(의) 이(이)러(러)런(런) 하(하)위(위)사(事)실(實)적(적) 지(지)평(評)이

이르게 된다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나, 나는
 그 가장 중요한 原因이 김수환 추기경의 외설대로
 근속한 言論彈壓으로 인한 言論自由의 喪失에
 있다고 믿는 바입니다. 일차로 「民主言論운동
 協議會」가 독주했듯이, 백종우 獨裁政權이
 출범한 이래 이 나라의 言論은 정권관계는 물론
 심지어 公明정당의 이상에 관한 보도도 이르기까지 記述
 와 寫眞의 크기 그리고 報章의 傾向 등 모든 면에
 걸쳐 政府機關에서 내려주는 「報章指針」
 이라는 魔手이 사달려야 했습니다. (수위)

독자 여러분 이하 국민 여러분!

이것은 일을 저지른 여러분만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이 역사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수치입니다.
 분도가 아니라 사건으로 이 수치의 증가점이
 3월 11일 도형하는 바입니다.

수위

KBS 사형료 납부 거부운동이 은 국민의 할화와 불채를
 불러 일으킨 일, 그리고 불충족자들의 機能은
 正常化를 위한 역할같은 성인으로 불러 일으킨 일
 行政權의 論議가 국민으로부터 얼마나 커다란
 반발을 받고 있는지를 여실히 증명하는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비판한 예로서

내가 國會에서 反對演說을 하는 날이면 여김없이
 내려오는 報章記事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輿論
 으로 하여금 나의 연설내용을 一面적으로
 받들고 강요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민중이 政府의 부당한
 불응시킴을 거부하고 獨自의 糾正權을 행사
 해왔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비의 輿論 論議자들의 이라든가
 自由言論 對立 對立 對立 對立 對立 對立 對立 對立
 對立 對立 對立 對立 對立 對立 對立 對立
 對立 對立 對立 對立 對立 對立 對立 對立

여러분들의 재능과 지능을 함께 발휘해주시길 바랍니다.

議院 議員 諸君, 여러분, 그리고 總長 이하 國務委員 여러분!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행사받지 못한 채 손수위 입단이 ~~부패~~ 불리적인 방법으로 공화력을 장악한 경우 가장 일반적인 나쁜 현상 가운데 하나가 공화력으로 ~~부패~~ 권력을 쥐고 안저없이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회적으로 손수위 권력의 횡포로 인한 국민들의 의욕 상실과 패배가 두드러지게 되고 경제적으로 권력 입단과 손수위 발간의 찬송과 불을 무기한 유행 현상이 심화되기 마련입니다.

이런 정부는 獨裁權의 부패한 기원을 양산리 모든 實業의 정리를 위해 실로 상상할 수 없는 天文學的 規模의 국력의 손

소수 과반들에게는 사각지대를 내줍니다.

정부가 자의한 규정을 반하기로 거부한 것 자체가

도대체 ~~이것이~~ ~~반대~~ ~~이러한~~ ~~정~~ ~~원~~이

남은 돈을 15년 거리 15년 분할 상환 따위

조건으로 빌려 주거나 유예 해주는 게

도대체 많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합치는 안목이나

내가 비록 기업 경영에 ~~부하~~ ~~부담~~ ~~이기는~~ ~~하~~

이것은 많이 빌려 주고 유예해 주는 것이지

심은 그냥 거저 주거나 탕감 해주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解放과 더불어 정치에 입문한 이래

자유당 독재와 유신독재 하에서 온갖 부정

부패와 추악한 정치·경제야합을 슬하

보아 온 터이긴 하지만, 나는 이처럼 파렴치한

장래는 일찌기 본적이 있었읍니다.

4

1) 조원이라는 금액은 일천만 농민의 빚을
 완전히 탕감해줄 수 있는 금액이고, 우리가
 시급한 현안의 문제를 삼고있는 농민과
 도시 영세민들의 의료보편정책, 중학
 의무교육, 국민학교 과밀교실의 해소 등
 3대 활동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처럼 요긴하게 쓸수있는 국민의 돈을
 어떻게 몇몇 가족이 소유·장악할지 배
 하고 있는 재벌들에게 고스란히 바칠 수
 있단 말입니다. 더욱 흉^한스러운 것은
 이와같은 반국민적인 지원은 ~~추경~~ 위해
 현정권이 기만적인 수법과 날치기 까지
 자행하면서 租減法, 韓銀法 등 관계법령의
 개정을 강행했다는 사실입니다.
 현정권이 출범할 때 그토록 강조했던 정의
 사회 구현의 깃발은 지금 어디에 감추어두려 있는지

民主化의 拒絶과 국민 의사의 尊重은 무시는 결국 우리 국민 경제의 내부에 점점 더 큰 病根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헌정권은 경제의 민주화와 관련해서 반드시 실현해야 할 정책과 제도를 발표하겠다고 하는 때면 실현 직전에 賤商들의 요구에 따라 유보하거나 후퇴하곤 했습니다.

한下經濟의 추방을 위해 내세웠던 「金融实名制」 실시는 온갖 주실을 붙여 사실상 死藏시켰고,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한 改正高法의 相互出資 금지규정은 이미 몇 ^년째 死文化 되었으며, 뒤늦게 같은 취지로 추진되던 「公正企業法」 개정 주장은 재벌들의 입김 ~~앞~~ 면에 못대 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중

또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중복식시키고
 공정한 稅制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필수}
 불가결한 작업이었던 不動産 綜合稅制는
 당초의 발판와는 달리 언제 실시될 지
 기약조차 한 수 없는 형편이 되고 말았읍니다.

~~우선 내세우는 것은...~~

국민경제의 내부 모순을 붕괴의 방향으로
 격화시키고 사회정의에 반하는 이 모든
 퇴행에 있어서 정부와 ^{그동안}여당의 ^각각기
 어떤 역할을 담당하였읍니까?

만약에 정치권력이 진실을 국민에 기쁨을
 주고 보장하는 ~~근호개혁~~은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단언하는 바입니다
 국민의로부터 생성된 것이라면, 다시말해서
 우리가 이미 근호개혁이 이루어졌더라면
 지금까지 내가 경제문제에 관해서 거론
 해러 말 가운데 거어는 것 하나도 일어나지

많은 분들께 아낀니까?

정치의 민주화가 경제의 민주화를 이끌어
가는 기관차라는 사실은 우리가 따라잡고자
하는 선진제국 (특히 한국) 이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바이며, 지난 수년 동안
우리가 겪었던 일 역시 이를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권은 권력에
찬미한 소수집단의 부귀영화를 위해 다수
국민을 희생시킬 뿐 아니라, 어리석게도
국내에서의 지지기반 약화를 외국의 환심으로
보전하기 위해 국가이익의 희생마저
서슴지 않는 법입니다.

나는 계속 문화국 출범이래 무리하게
강행되어온 수입개방 정책이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압력 때문에 후방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현정권이 왜
 일천만 농민과 영세서민들의 희생을 강요
 하면서 이제는 양남해까지 수입하는 파위의
 허약한 자세를 보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한 해결방안 역시
 중급적으로는 우리가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부를
 갖는 길 밖에 없으며, 이런 의미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정부선택권을 보장하는 민주개혁은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단언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정권의 비민주성이 가라
 살림을 꾸려가는데 있어서 어떤副作用을
 빚고 있는지를, 87년도 예산안을 통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마시다시피 현재 ~~우리~~ 우리는 13際金價와
 原油價의 하락 등 좋은 여건에 힘입어
 수출산업 중심으로 경기회복에 들어섰고
 그 결과 경상수지 흑자라는 慶幸을 만났으나

따라서 이와 같은 여건하에서는 해외부문
 에서의 撒退가 혼란하지 않도록 긴축적인
 기조위에서 새로운 안뜰레를
 통화정책과 재정 ~~정책~~을 짜야 하는데
 정부는 이 두가지 원칙을 모두 무시하고
 있습니다.

재벌지원을 위한 방만한 통화운용으로
 총통화증가율은 이미 수정된 연말규제선을
 초과해 버렸고, 일반회계 증가율은 83년
 이후 가장 높은 12.9%를 기록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각종 기금^들에서
 1천억 원에 가까운 돈을 꾸어나 쓰는
 전형적인 팽창예상을 짜놓은 잇따는 형태
 입니다.

나는 지금이야말로 언제 닥쳐올지 모를
 것은 날에 대비해서 우리의 여력을 비축
 해야 할 때이며, 나라살림도 그런 자세로
 짜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컨대 GNP의 일정율을 무조건 배정
 토록 되어있는 보국방비에 대해서는, 그
 효율성을 제고하여 삭감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며, 原油의 하락분을 정부가 관세로
 계속 부담아 먹은 것이 아니라, 유류가격
 인하를 통해 국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같은 국면의 소리를 외면하고 '억압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 예컨대 수만명의 과다한
 첩투경찰을 유지하는 비용이나 정권안보를
 위해 낭비하는 비용을 절약한다면 국면의
 조세부담률이 해마다 늘어나는 악습은 즉각
 개선될 것입니다.

국면의 뜻을 거역하면서 무리와 날치기로
 국민부담을 결정하는 태습은 언제까지
 지속할 작정이란 말입니까.

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우리의 유일한
 주인인 국민에게 민주개혁을 약속했습니다.
 어느 정당이나 어느 개인의 집권연장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민주개혁을 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나와 우리당은 대한민공과 대한민공

국민의 유일한 생존전략인 이 과업의 수행을
위해 국면이 우리에게 부여한 성스러운
직책 그 전부를 결코 선택할 것입니다

나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인생에 두번 다시는
없을 투쟁이 될 것이며 우리당 소속 의원들로서는
時代的 使命의 祭壇 위에 국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그 숭고한 職을 봉헌하는
성스러운 투쟁이 될 것입니다.

~~국면이 우리에게 부여한 성스러운 직책을 결코 선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13代 국회가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목적을 위해 투쟁해야 할 필요가 없게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986. 10. 10

기꺼이 봉헌하노라
1986. 10. 10

